

다산포럼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용문에 오른 뒤 해야 할 일

이 나왔을 것이다. 등용문은 '천하의 모범'이라 칭송되던 엄격한 이응에게 인정 받는 것 자체를 영광스럽게 여긴 표현이었다.

등용문으로 당대 최고의 이름을 얻은 이는 궤태(郭泰)였다. 궤태가 낙양 땅을 처음 밟았을 때, 그를 만나 본 이응이 "수많은 선비를 만나 보았지만 이렇게 박학다식하고 점잖으며 섬세한 사람은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벼으로 삼자 낙양 전체에 궤태의 명성이 진동했다. 궤태가 낙양을 떠날 때 진송하리 황하 가에 나온 선비들의 수레가 수천 대에 이를 정도였다. 궤태의 두견 한쪽 귀가 비를 맞아 꺾인 것을 본 사람들이 너도나도 두견의 한쪽 귀를 접어서 쓰면서 일대 유행이 되었다고 한다. 그가 얼마나 많은 행에 의해 추앙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 준다.

그렇다면 이응의 인정만으로 궤태의 높은 명망이 오래 유지될 수 있었을까? 용문에 오른 뒤 궤태는 낙양에 안주하지 않고 곳곳을 다니면서 숨은 인재들을 발굴하였다. 백경이나 술장수 등 미천한 직업에 있는 이들을까지 포함해서 궤태 덕분에 이름이 알려진 이들이 60명이나 되었다. 여관에 하루를 묵어도 매번 손수 정

소를 깨끗이 해 놓고 떠날 정도로 그는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은거하면서도 인지상정을 저버리지 않았고 정결하면서도 세속과 어울려서, 누구도 그를 부릴 수 없었으며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였다.

위소(魏所)라는 인물이 "교과서 가르쳐 주는 경사(經師)를 만나기는 쉬워도 박학다식하고 점잖으며 섬세한 사람은 처음이다"고 하면서 궤태의 시종들기를 자처하였는데, 그의 진심을 확인한 궤태는 그를 시종이 아니라 벼으로 사귀었다. 궤태의 비문을 쓴 채옹(蔡邕)은 "비문을 쓰다 보면 미화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늘 부끄러웠는데 이 비문을 쓰면서는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다"고 하였다. 용문에 오른 뒤에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시인 이승인(李承仁)은 "책 읽으며 옛사람을 생각하니 나의 형편없음을 여실히 깨닫네"(讀書懷古人, 殊覺我無狀)라고 하며 궤태의 드높은 자취를 앙망하는 시를 지었다. 위인지학(爲人之學)에 대한 경계가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사실은 그만큼 예전에도 입신출세를 위해 공부한 이들이 많았음을 반증한다.

하지만 옛사람을 만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이 책을 읽는 목적이어야 한다는 당위만큼은 중요하게 여겨 왔다. 칭송만이 아니라 비판도 당연히 필요하다. 이응을 비롯해 뜻을 함께한 100명의 지사들이 몰살당할 때에도 해를 입지 않은 궤태를 두고, 중용의 언행을 실천한 명철보신의 결과라는 칭송도 있었다. 하지만 진정 본받아야 할 처세로 볼 수는 없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다만 칭송이든 비판이든 초점은 역사 속 인물들을 만나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에 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책을 읽고 지식을 쌓고 있는지 돌아보게 한다. 용문에 오른 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배운 적도 고민한 적도 없는 이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간다면 실로 끔찍한 일이다. 이응과 궤태가 목도해야 했던 한 나라 왕실의 몰락 과정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실이지만, 그럴수록 다시 살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다. 용문에 오르기 전에는 물론이고, 용문에 오른 뒤에야말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역사 속 인물들을 만날 일이다.

청춘 특·특

'n번방'과 우리 사회



최윤진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2학년·조대신문 기자

최초 개설자 '갯갯' 문형욱이 지난 5월 11일 경찰에 검거됐다.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된 지 2개월여만의 일이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가해자 전부가 20대로서 이들의 공범 또한 10대 미성년자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특별한 건 결과적으로 조주빈이 아니라, 특별한 건 뭐냐? 그 무법천지의 사이버 공간이 특별한 것이다. 그 속에 들어가서 금전적인 이득을 노리려면 합법적인 방법보다는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게 훨씬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다. 즉 그 안에서 활동하는 동안엔 탐구법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수정 경시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말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를 정확히 짚어 주고 있다. 조주빈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조주빈의 n번방'을 가능하게 한 우리 사회, 사이버 세계로 비판의 시선을 확장해야 한다.

피의자들의 나이를 보며 '주위 사람 중

에 텔레그램 대화방과 간접적으로나마 관련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섬뜩한 생각이 든다. 주위에서 보면 대학이나 사내 단톡방의 성희롱은 아직도 드물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지금도 어디에선가 저질스럽고 다른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는 대화의 자연스럽게 오고 갈 것이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은 예전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곁에는 그러한 인식이 약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잘못된 점을 조금이라도 지적할 경우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으로 치부해 버린다. "농담인데 뭐 어때." 우리 사회가 그랬다. 특히 사이버 세계에선 사진과 영상으로 더욱 집요하게 인권을 유린해 왔다.

'n번방'은 결국 우리가 만든 '괴물'이다. 가수 정준영 등 연예인들이 저질렀던 '불법 촬영물 제작 및 유포 사건'도 비슷

한 맥락이다.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는 이런 사건과 관련된 법이 통과됐다. 바로 'n번방 방지법'이다. 디지털 성폭력 처벌 관련 법정형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고, 불법 촬영물 구매·소지·저장 그리고 시청까지도 처벌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변화가 법에 포함됐다. 또한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사진·영상도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될 수 있고,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강요할 경우에도 법으로 문제삼는 것이 가능해졌다.

안전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선 법과 제도가 촘촘해야 한다. 흔히 쓰는 '사회 안정망'의 망(網)은 '그물 망'자이다. 위험이나 곤란 등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조직과 시설 체계 등을 말한다. 'n번방' 사건을 겪은 우리 사회에 남겨진 숙제는 일상적인 성폭력,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수 있는 촘촘한 그물을 만드는 것이다. 'n번방 방지법'이 중요한 시발점으로 작용하길 기대해 본다.

社說

5·18 관련 법안 여야 공동 발의 바람직하다

더불어민주당이 5·18 역사 왜곡 처벌과 진상 규명을 위해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인 5·18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공동 발의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과거와 지역'을 넘어서서 '미래와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 역사 왜곡처벌법)'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5·18 진상규명법)'을 대폭 보완해 당론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포함한 여야가 해당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서구갑)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여야가 광주 지역 아픔을 넘어 미래로 가자는 점에 공감하고 공동 발의에 나선다면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극우 보수 진영에서는 5·18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과거에만 집착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18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다면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연내 입법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래통합당 김중민 비상대책위가 "호남과 진보를 아우르겠다"며 외연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역시 당 일각의 과거 '5·18 망언'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5·18을 둘러싼 갈등과 상처 치유를 강조한 바 있다.

5·18 법안의 여야 공동 발의를 현실화하려면 지역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야당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미래통합당도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 주고 통합의 정치를 이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일부 논란이 되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로 고립된 장애인 부모 피눈물 흘린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길어지면서 발달 장애인의 고통이 커져만 가고 있다. 장애인 복지관과 직업 재활훈련 시설, 특수학교 등 장애인을 돕는 공공시설이 대부분 문을 닫으면서 장애인들이 오갈 데 없이 집안에 고립돼 있기 때문이다. 두 달 넘는 시간이 이어지자 발달장애인들은 갇혀 있는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헝거워 한다.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린다.

오죽했으면 최근 20대 중증발달장애 아들을 둔 50대 엄마가 자식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인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모자는 지난 3일 광주 관산구 관내 도로 위 자동차 안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그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다 큰 장애 아들을 홀로 책임져야 했던 엄마가 끝내 삶의 마지막 끈을 놓아 버린 비극이었다. 죽어 아مان 끝이 나는 '갈장 돌봄', 발달장애인

을 둔 가족들의 사투는 살아서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광주 지역 발달장애인은 모두 7834명. 이들 가운데 자매 증상은 843명이며 지적장애를 가진 경우는 691명이다. 특히 자매 증상 중 도전적 행동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도 70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몸이 헝거워 행동에 억제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그래도 발달 장애인 자녀의 일생을 책임져야 하는 부모들은 내가 아프면 어쩌나, 죽으면 어쩌나라며 자식 걱정을 한다. 그래서 이들 엄마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꼭 어떻게 기도한다고 한다. "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 주세요." 사회가 손을 내밀어주지 않으면 이들은 한계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제 국가와 지역사회가 이들 가족에 지원된 무거운 짐을 나누어 져야 할 때다.

無等鼓

더불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은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 19국난극복위원장이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대세론'을 견제하기 위해 당내에서 '반낙 연대'(反이낙연 연대)가 형성되는 조짐이 있기 때문이다.

영남권 잠룡인 김두관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권 주자가 7개월짜리 당권에 나서는 것은 우리의 선택지는 아닌 것 같다"고 이 위원장을 직격했다. 또 친문(친 문재인) 핵심으로 당 표 의원도 지난 2일 "대권 주자가 당권까지 가지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견제에 나섰다.

최근에는 정세균 총리와 김부겸 전 의원의 연대설이 불거지면서 당이 한 차례 요동치기도 했다. 지난 3일 당내 최대 계파인 '더좋은미래' 정례회에서는 대권 주자들의 전대 조기 등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8월 전대를 앞두고 이낙연 위원장을 중심으로 '1강 다중' 구도가 고착화되기 전에 나머지 잠재적 당권·대권 주자들이 '뺄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당판에서 독주 가능성이 높은 1강을

견제하기 위한 다중의 연대는 흔한 일이 다. 당내 기반과 팬덤층이 약한 이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정치적 시험대에 올라선 셈이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의 정치 1번지인 종로에서 승리, 한 고비를 넘어선 이 위원장은 말을 아끼며 물밑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오는 11일에는 부산·경남(PK) 지역 낙선자들과 만찬을 하는 등 '식사 정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실상 정면 돌파를 통해 당권을 잡고 대권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심산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지만 과연 당내 권 도전에 나서는 흥영

'반낙 연대'

표 의원도 지난 2일 "대권 주자가 당권까지 가지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견제에 나섰다.

정치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정치인의 힘과 리더십은 수많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얻게 되는 자산이다. 그렇게 해서 비전을 제시해야 함께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을 만들 수 있다. 한때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며 차기 정몽으로 주목받았던 고건·반기문·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의 정치적 실패 사례는 반면교사(反面敎師)다. 정치 권력에 쫓기는 없다. 이 위원장이 과연 당권 도전의 길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호남 민심은 말없이 지켜보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서남권 관광거점도시에 거는 기대

뿐만 아니라 서남권 관광 여건도 예년과는 현격히 달라지고 있다. 목포 해상케이블카와 천사대교 개통으로 그동안 열약했던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고 맛의 도시 선포와 야행 문화재, 섬의 날 지정을 계기로 시작된 섬 관광, 목포 근대역사 문화공간으로 이어지는 관광 콘텐츠는 문화와 역사가 결합어진 도시라는 브랜드로 형성되어 서남권으로 많은 관광객을 이끌고 있다.

관광은 문화가 결합되어야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 다행스럽게도 서남권은 선조들의 뿌리가 담겨있는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천사(1004) 섬으로 널리 알려진 신안군을 비롯하여 2000여 개의 크고 작은 도서와 수려한 해안 경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을 가진 해양 관광 보고이다. 나아가 국제적인 레저·휴양 활동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이런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서남권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서남권 관광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그 파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먼저 시작하고 미래를 위해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무엇보다 인근 신안, 무안, 영광, 완도, 진도, 강진, 영암 등 시군과 연계한 광역 관광벨트 조성과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면서 서남권 자치단체만의 특성을 살린 문화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큰 틀에서 조감해 보자면 무안공항, 섬 관광, 천사대교와 해상케이블카 등 하늘과 바다, 육지를 연결시키는 삼박자가 조화된 관광 전략도 검토해 볼 만 하다.

최근 들어 국제 관광 여건이 급격적으로 변화되는 추세다. 종전 같이 보고 지나가는 단순한 관광 형식에서 벗어나 한류와 연계되어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

기 고



이현진 경영학 박사·전 목포시청 국장

최근 들어 목표를 비롯한 서남권에 할기가 넘치고 있다. 목포가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어 미래 한국을 이끌 핫 플레이스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서남권이 세계적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큰 프로젝트이자 목포 발전의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총 100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연계 될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 또한 엄청난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남권의 지리적 이점과 그동안 축적해온 시민의 저력을 극대화한 새로운 도약의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일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92	기획관리국	220-0511
220-0663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52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220-0642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